

휴식기 재충전 광주FC, FC서울 상대 6연승 ‘정조준’

 **오늘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서 홈경기**
승점 24 리그 6위…선수단 사인회 등 이벤트 다채

A매치 휴식기를 마친 프로축구 광주FC가 FC서울을 상대로 6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1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8라운드 서울과의 홈 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올 시즌 국내 어떤 구단보다도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 4~5월 광주는 리그, ACL, 코리아컵을 병행하며 두 달간 13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펼쳤다.

선수단 역시 체력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지난 1일 대구전 이후 끝맛 같은 A매치 휴식기가 찾아왔다. 광주 선수단과 코칭스태프는 이 기간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을 완료했고, 전력을 다시 가다듬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 경기를 맞이한다.

광주는 현재 리그 17경기에서 6승 6무 5패 승점 24로 리그 6위에 자리하고 있다. 로테이션을 돌리며 힘겹게 여러 대회를 소화하는 중에도 상위스플릿권을 유지했다는 점은 확실히 고무적이다. 물론 여전히 리그 최상위권(1위 전북현대모터스 승점 35·2위 대전하나시티즌 승점 32·3위 울산HD 승점 29)과는 격차가 있다. 다만 4위 포항스틸러스(승점 28), 5위 김천상무FC(승점 25)와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앞으로의 경기 결과에 따라 충분히 순위 상승이 가능하다.

빠르게 승점을 쌓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6월 남은

일정은 광주의 상승세가 예상된다. 광주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과의 맞대결은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가 유일하다. 10위 제주(승점 19), 8위 안양(승점 21)과의 경기는 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광주가 6월 4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시즌 반환점을 돌기 전 우승권 경쟁에 합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긴 휴식 후 첫 단추를 끼워내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광주 선수단도 승점 3점을 향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또 재개된 후 치르는 첫 경기가 서울전이라는 점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광주는 최근 FC서울을 상대로 유독 강했다. 2023년 9월 17일 30라운드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3번의 리그 맞대결에서 모두 이겼다. 더욱이 이러한 기조는 올 시즌에도 계속되고 있다. 광주는 지난 9라운드 서울을 2-1로 제압, 서울전 5연승 달성에 성공하며 ‘서울 킬러’ 면모를 이어갔다.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 서울을 제압하고 승점을 추가하며 순위 반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광주는 이번 휴식기를 앞두고 최상의 그라운드 상태를 유지한 클럽에게 주어지는 ‘그린 스타디움상’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5월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와 최고의 골을 득점한 선수에



지난달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6라운드 울산HD와의 경기에서 광주FC 김한길이가 패스를 하고 있는 모습.

게 수여하는 ‘이달의 선수’, ‘이달의 골’ 시상을 진행한다. 장외에서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주최하는 ‘K

리그 온 더 로드’ 이벤트를 진행해 찾아오는 팬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이외에 중독폐해예방 연합캠페인 부스 운영, 품품푸린 포토

존, 선수단 사인회 등 풍성한 이벤트 현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이어지는 부상 악재…KIA 윤도현, 손가락 골절 중간마디뼈 골절 진단…4주간 재활 소견

연일 부상으로 신음하는 KIA타이거즈가 또다시 악재에 휩싸였다. 내야수 윤도현이 손가락 골절로 이탈한다.

KIA는 12일 “윤도현이 병원 검진 결과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중간마디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며 “수술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약 4주간 재활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윤도현은 전반기 आयु이 결정됐다.

앞서 윤도현은 지난 1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주중 2차전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장했다.

이날 윤도현은 7회초 무사 2루 상대 다이아의 타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 손가락에 공을 맞았던 그는 통증을 호소해 흥중표와 교체됐고, 병원 검진을 진행한 결과 골절 진단을 받았다.

지난 2022년 신인드래프트 2차 2라운드 15순위로 KIA에 등지를 뜬 윤도현은 김도영과 입단 동기다. 무등중학교 시절에는 지역 최고의 유격수로 자리 잡으며 김도영과 라이벌 구도를 이뤘다. 광주일고 진학 후에는 강한 타구를 생산하는 능력과 견실한 수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 시즌에는 정규시즌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으나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해 결국 2군행



을 통보받았다. 이후 지난달 22일 다시 1군으로 복귀한 뒤부터는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올 시즌 19경기에서 4홈런 9타점 11득점 타율 0.279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8일 한화 이글스전에선 3안타를 몰아치는 등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현재 KIA는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 등 주축 자원이 부상으로 대거 이탈한 상태다. 이들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던 윤도현까지 이탈하게 되면서 KIA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66세’ 호남대 최성학씨, 리어폴업 턱걸이 세계 신기록

1분간 55회 성공…3년간 체력 단련 “나이는 숫자에 불과…도전은 계속”

호남대학교 드림라이프대학 라이프스포츠트랙 2학년에 재학 중인 최성학씨(66)가 ‘리어폴업 턱걸이’ 세계기록 보유자가 됐다.

최성학씨는 지난 11일 호남대 체육단련실에서 진행된 개교 47주년 기념 이벤트에서 1분간 55회의 리어폴업에 성공했다. 리어폴업은 어깨 힘만으로 목 뒷부분이 철봉에 닿도록 당겨야 하고, 팔꿈치는 완전히 펴야 하며, 양쪽 귀는 철봉 위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일반 턱걸이(프론트 풀업)보다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다.

최성학씨는 이날 지난해 11월 인도의 란비르 데사이(Ranvir Desai)가 세운 기존 세계기록 46회는 물론 국내 최고기록 보유자인 이재호씨가 2019년 10월에 세운 45개를 크게 넘어섰다.

최씨가 리어폴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2021년 유튜브에서 국내기록 보유자의 영상을 보면 서부터였다. 그는 1995년 행정고시(38회) 합격과 함께 공직 생활을 시작,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광주소년원장을 비롯한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공직 재직 시에 소년원생들에게 턱걸이를 가르치며 동기부여에 힘썼고, 2019년 퇴직



호남대학교 드림라이프대학 라이프스포츠트랙 2학년에 재학 중인 최성학씨(66·가운데)가 ‘리어폴업 턱걸이’ 세계기록 보유자가 됐다.

후에도 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3년 넘는 세월 동안 그는 하루 2~3회씩 고강도 운동 루틴(워밍업 5분·본운동1~3분·마무리 5분)과 단백질 위주의 식단, 규칙적인 수면, 52kg대의 체중 유지 등 철저한 자기관리를 지속하며 이번 도전을 준비해왔다

최성학씨는 “퇴직 이후 건강을 지키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호남대 드림라이프대학에 입학했는데, 마침내 약속한 목표를 달성해 무척 기쁘다”며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저 같은 실버세대도 꾸준한 노력과 인

내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젊은 세대에게 보여주며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었다”며 “앞으로는 프론트 풀업, 한 손가락 턱걸이, 팔목 턱걸이 등 새로운 종목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도전은 박상철 호남대 총장, 대학 관계자들과 스포츠레저학과 학생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박상철 총장은 기록 달성 인증서와 함께 꽃다발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 기록 영상은 기네스 월드 레코드 등재를 위해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최종 공식인증은 추후에 결정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광주·전남 130명 참가

13~15일 강원도 홍천서 열띤 경쟁

장애인인과 비장애인인이 함께하는 스포츠 축제 ‘제4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이 13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홍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 1097명과 임원 및 관계자 344명 등 총 1441명이 참가해 수영, 탁구 등 12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개회식은 13일 오후 4시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광주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볼링, 배드민턴, 좌식 배구, 파크골프, 낚시 등 총 5개 종목에 50명이 출전한다.

지난 대회에서 금 2, 은 2, 동 2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한 광주 선수단은 이번 대회 낚시 종목

단체전(4인제) 등에서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형 생활체육 축제로, 참가자들에게 건강과 자신감을 선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며 “광주 선수단이 지역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전남은 파크골프, 볼링, 낚시, 휠체어러미, 좌식 배구, 배드민턴, 파라트라이애슬론, 조정(실내) 등 8개 종목에 83명이 출전한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기 참가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고 소통하며 상호 이해를 높이는 의미 있는 축제의 장”이라며 “전남선수단이 안전하고 당당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19일 ‘람사르 데이’…습지 보전 중요성 알린다

선수단 특별유니폼 착용…기념 사인볼·배지 등 제공

KIA타이거즈가 오는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t위즈와의 경기에 ‘람사르 데이’를 개최한다.

‘람사르 데이’는 KIA 구단과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이하 람사르 센터)가 함께 습지 보전에 관한 국제 협약인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과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람사르 데이는 국내 최초로 프로야구단과 환경분야 국제기구가 함께 펼치는 환경 캠페인으로, 팬들에게 환경 보호 동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경기 시구와 시타는 전남 강진군 음천초 6학

년 정세영 학생과 경남 창녕군 남지초 6학년 정아영 학생이 맡는다. 음천초와 남지초는 각각 강진만과 우포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습지학교이다.

선수단은 람사르 협약의 상징색인 청녹색과 습지를 상징하는 갈색을 활용한 람사르 데이 특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유니폼에는 습지에서 서식하는 수달을 캐리커화 한 패치와 습지 보전 메시지를 담은 ‘I ♡ Wetlands’ 문구도 새겨진다.

람사르 센터는 이날 관람객들에게 람사르 데이 기념 사인볼과 배지를 나눠주고, 학생들의 습지 인식 증진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지정 운영하는 습지학교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 중에는 습지 보전 퀴즈 이닝 이벤트와 SNS



퀴즈 이벤트를 통해 람사르 기념 유니폼과 사인볼을 증정한다.

한편 KIA는 7월 중 람사르 센터와 연계해 통해 타이거즈 키즈 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광주 장목습지 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